

## 東京電力 - 100萬V 送電計劃 進行

東京電力은 柏崎제 2루트線 100만V 송전선 건설계획의 자연공원법에 의거한 허가신청을 내년 4월에도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일환으로서 환경아세스도 예의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鐵塔의 채색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회색 기조에 配色을 고려하는등 종래의 철탑의 이미지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 같다.

국립공원내를 통과하는 群馬, 山梨간선·新潟 群馬간선의 100만V설계의 50만V 송전선 건설계획은 이미 구체적인 위치설정을 위한 측량조사의 보링허가를 얻어 스케줄적으로는 연내 10월 착수하기 위해 적어도 반년간의 심사기간(환경청의)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내년 4월경의 자연공원법 관련의 허

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東京電力에서는 공원내의 철탑채색에 대해서 환경아세스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회색基調에 자연경관을 가미한 배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백테이터는 환경청 자신도 이같은 종류의 건축물(예로 高原의 리프트等)에 일종의 指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종래 철탑, 굴뚝등의 건축물의 채색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상에서 논의되어 회색 基調로 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색 배합을 고려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추후확정도 포함하여 환경아세스가 주목되고 있다.

## 低電壓 配電問題 검토

### 電氣事業連合會 - 연내 研究委 발족

電氣事業連合會는 금년 가을에도 「低壓配電電壓基本問題(200, 400V급 기기이용기술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資源에너지廳·전력이용基盤強化 간담회 보고의 실질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것은 자원에너지청, 전력, 電工會, 배전선공사단체, 주택도시정비공단, 그리고 주부연합회등 관계단체로 이루어지는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장

래의 電化생활의 진전을 뒷받침한다.

연구의 목적으로서는 「21세기 에너지비전」, 「전기사업의 21세기 비전」등 장래의 에너지이용예측에서 전화생활을 목적으로한 空間, 주방, 급탕, 건조등 전기기기의 보급에 의해 전기에너지의 역할은 한층 높아진다.

저압배전에 관한 배전전압, 공급시스템등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자원에너지청·전력이용 기반강

화간담회가 보고서를 종합하여 금후의 방향성을 표시한바 있어 이들을 토대로 장래의 전화생활의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 (1) 전력이용의 현상과 금후의 동향
- (2) 단상 3선방식에 의한 200V이용의 환경정비
- (3) 장래의 기기·육내배선·배전전압 등의 기본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연구내용은 一, 전력이용의 현상과 금후의 동향  
① 용도별, 전압별 기기이용의 현상 ② 예측되는 기기의 동향

二, 200V급 기기이용방법 ① 대용량 전기기기등

의 200V급 기기의 이용과 편리성(경제성, 안전성을 포함) ② 200V급 기기적격전압(대지전압 100V 및 200V급의 안정성, 경제성, 利便性의 비교검토) ③ 기기의 보호, 보안대책

三, 육내배선, 배전전압등의 환경정비=①육내배선 단 3화주진책 및 200V급 기기의 개발과 보급책 ② 빌딩등에 있어서의 200, 400V급 육내배선의 보급책과 기기의 개발 및 보급책 ③장래의 육내배선·배전전압방법 ④금후의 과제등 이것들의 연구기간은 약 2년간이 예정되고 있다.

## 原子力安全 再檢討 불필요

### 調査特別委員會서 結論

86년 4월에 일어난 소련 체르노빌 原電사고를 日本의 原電안전확보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조사, 검토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柳甲東大교수)는 28일 「현행의 원전안전규칙과 방재대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최종보고서를 동위원회에 제출, 승인 되었다.

8년전의 미국·스리마일 島 원전(TMI) 사고시에는 原電에 52개항목의 개선책을 지시한바 있다.

조사보고서는 「사고의 상황」 「우리나라의 현상」 「결론」의 3부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에 따르던 사고의 원인, 경과등은 작년 9월에 작성한 제 1차 보고서와 기본적으로 다를바 없었다

사고는 爐가 극히 불안정한 저출력에서 터빈의 慣性회전에너지 시험에 돌입하는등 운전원이 여러가지의 규칙위반을 행한 외에 사고로에 多重 방호의 안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 이번의 사고는 「多重방호 사상의 중요함을 새삼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또 제 1차 보고서에서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던 원자로의 폭발상황에 관해서는 대규모인 연료용융 파손에 따른 수증기 폭발이 아니라 연료봉의 被覆管의 질코늄이 파손함으로써 일어나는 수소폭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爐心外폭발」로 했다.

제 2부에서는 日本의 原電은 경수로 신행전환로 원형로가 모두 출력이 심하게 상승했을 경우, 출력의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봉이 튀어 나오는 것을 저지하는 인터록이 있는 다중방호의 안전설계가 되어 있으므로 소련사고와 같은 원자로폭주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했다. 그리고 만일 소련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을 '대폭으로' 넘는 액시던트가 발생해도 해도 방사능 밀폐의 최후의 관문이 되는 격납용기는 「(현행의 안전평가치를) 상당 상회하는 대량의 수소가 발생시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로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것들로 하여 제 3부에서는 「우리나라 原電의 안전선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현황의 안전규칙과 그 관행을 조금씩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또 소련사고에서는 원전 주위 30킬로 권내의 주민 13만 5천 명이 피난했으나 原電에서 8~10킬로 권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소련사고와 같은 대사고는 극히 일어나기 어려우며 일어났다고해도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방출되는 일은 없다는 이유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